

산업보건 주요뉴스

봄철 오전 10시, 체육행사, 뇌심혈관질환 '주의'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업현장 재해발생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체육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연구원은 '봄철 산업재해 특성' 조사를 통해 봄철 일터에서 체육행사로 인한 사고와 뇌심혈관질환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460,424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8개 재해유형 중 체육행사로 인한 사고(37.84%)가 봄철 재해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뇌혈관계 질환(32.92%), 진폐(28.8%),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으로 인한 사고(27.94%),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재해(27.8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진폐의 경우, 과거 유소견자의 봄철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체육행사 중 사고가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봄철 야외행사가 많고, 발생한 재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고르지 못한 지면이나 사람과의 충돌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원은 체육행사 시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고, 행사 전 스트레칭 실시, 무리한 동작이나 음주 등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체육행사 중 사고 다음으로 봄철 재해발생률이 높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건설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환절기의 큰 기온차와 공사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겨울철 위축되었던 신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급격한 기온 저하 시 혈압상승을 가져오고, 과도한 작업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외출이나 근무 전 준비운동으로 몸의 굳은 근육과 관절을 풀어줌으로써 뇌심혈관질환이나 사고성 요통 등의 재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종별로는 봄철 광업(29.81)에서의 재해발생률이 가장 높고, 금융 및 보험업(29.21%), 임업(27.35%), 제조업(26.09%)의 순으로 재해발생률이 높았다.

산업비중이 높은 건설, 제조, 서비스의 3대 업종 중에서는 3월에 제조업에서 14,056명의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밖에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근무기간별로는 2년 이상 근무자가,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재해발생 시간대는 오전 10시에 재해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실시

- 3월 12일부터 전국 5,000여 개소 대상

산업보건 주요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과 함께 기술지도와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위험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위험물질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9일 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과 함께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도점검 대상은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중 특히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독성이 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5,000여 개 사업장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특히 위험설비의 안전운전 실태, 위험물질의 적정취급 실태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었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외에 시정명령, 안전보건진단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명령 등을 통해 안전관리 상태의 근본적인 개선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점검 시 ①위험물질의 안전정보, ②위험물질 취급 안전수칙, ③화재·폭발·누출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 등의 기술 자료를 현장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편 3~4월 중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화재·폭발·누출사고는 발생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재산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에게까지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하면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경영자부터 위험물질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위험물질 누출 등의 위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위험상황신고실(T: 1588-3088)을 설치하여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지도원(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I. '13. 2월말 기준 고용동향

1. 종사자 동향

종사자수 14,560천 명으로 전년 동월(14,418천 명)대비 142천 명(1.0%) 증가하고, 상용근로자 중심의 고용증가세를 유지

규모별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2,395천 명으로 전년 동월(2,325천 명)대비 3.0%(70천 명) 증가,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수는 12,165천 명으로 전년 동월(12,093천 명)대비 0.6%(72천 명) 증가

산업별 전년 동월대비 종사자수가 많이 증가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9천 명), 제조업(+34천 명) 순이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2천 명), 운수업(-23천 명) 순으로 감소. 금융 및 보험업(9.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9%) 순으로 증가율이 크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7.6%), 운수업(-3.6%) 등에서 종사자수 감소율이 큼. 금융 및 보험업은 '11.9월 이후 1년 6개월 연속 양적 증가세를 이어가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은 '11.1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

2. 노동이동

입직자는 586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6천 명(-16.5%)이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570천 명으로 148천 명(-20.6%)이 감소. 이직사유별로 보면, 자발적 이직자는 280천 명으로 전년 동월(380천 명)대비 100천 명(-26.2%) 감소, 비자발적 이직자는 214천 명으로 전년 동월(266천 명)대비 52천 명(-19.5%) 감소

입직률은 4.3%로 전년 동월(5.2%)대비 0.9%p 감소, 이직률은 4.2%로 전년 동월(5.3%)대비 1.1%p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일자리 이동이 8개월 연속 둔화됨

3. 빈 일자리

매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빈 일자리 수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와의 정합성 등을 검토 중이며, 향후 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정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빈 일자리 수는 182천개로 전년 동월(149천개)대비 33천개 증가, 빈 일자리 비율은 1.3%로 전년 동월(1.1%)대비 0.2%p 증가

II. '13. 1월 급여계산기간 기준 임금 및 근로시간

1. 임금 동향

임금총액 '13.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68천 원으로 전년 동월(3,390천 원)대비 6.6% 하락

(정액급여)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2,568천 원으로 전년 동월(2,456천 원)대비 4.6% 상승

(초과·특별급여)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초과급여는 177천 원으로 전년 동월(167천 원)대비 5.9% 상승, 특별급여는 598천 원으로 전년 동월(957천 원)대비 37.4% 하락

규모별 300인 이상(상용기준)은 4,887천 원으로 전년 동월(5,369천 원)대비 9.0% 하락하였으며, 5~300인 미만은 2,719천 원으로 전년 동월(2,866천 원)대비 5.2% 하락하여 300인 이상에서 하락률이 큼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180천 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436천 원)이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41천 원),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835천 원)임.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3.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0%), 금융 및 보험업(-10.6%) 등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임금총액 하락률이 큼

2.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82.6시간으로 전년 동월(170.3시간) 대비 7.2% 증가.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86.9시간으로 전년 동월(174.2시간) 대비 7.3% 증가. 소정실근로시간은 174.9시간으로 전년 동월(161.8시간) 대비 8.1% 증가하고, 초과시간은 12.1시간으로 전년 동월(12.3시간) 대비 1.6% 감소. 임시·일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39.8시간으로 전년 동월(128.3시간) 대비 9.0% 증가

규모별 5~300인 미만 사업체(상용기준)의 전체근로자 총근로시간은 183.5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7.2% 증가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는 179.2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7.1% 증가

산업별 총 근로시간이 긴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201.1시간), 제조업(194.4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짧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162.2시간),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63.3시간) 순. 대체로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인 건설업(10.4%), 교육서비스업(1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0%) 등에서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이 큼. 전년 동월대비 근로시간 증가율이 높은 건설업은 전년 동월(152.4시간) 대비 10.4% 증가한 168.3시간으로 나타남. 🍷

산업보건 주요뉴스